

영광 출신 의병장 발자취 따라 의기와 리더십 배우다

큰 울림 남긴 '영광 의병장 청소년 캠프'

김용구·이순식 선생 흔적 탐방
격문 쓰기·의병 모의체험 통해
민족정신 배우고 자긍심 키워

'전라도 1000년 인물'로 꼽힌 의병장 김용구·이순식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 '영광 의병장 청소년 캠프'가 큰 울림을 남겼다.

지난 22~23일 이틀간 영광청소년수련원과 영광군 일대에서 열린 '의병장 캠프'에는 영광·곡성·광주지역 초·중학생 45명이 참가했다. 캠프는 영광군과 광주일보, (사)지역미래연구원이 함께 마련했다.

'의병장 캠프'는 영광 출신 김용구·이순식 의병장의 민족정신과 긍지, 애항심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목숨을 건 항일투쟁과 의기, 의병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참가자들에게 '전라도 정신'을 각인시키며 한국과 세계를 이끌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용구와 이순식은 대한제국 당시 활동한 의병장들로 을사늑약에 비탄감개해 붓 대신 총을 잡고 일제에 맞서 게릴라전을 펼쳤다.

학생들은 역사 골든벨, 리더십 논술, 의병모의 체험 등을 통해 역사 인물의 삶의 교훈과 자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격문 쓰기'는 불의에



영광군 대마면 화평리 수촌마을에 세워진 상산김씨 삼강문. 의병장 김용구와 아들 기봉, 그리고 며느리 청송 심씨를 기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항거하고,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의병정신을 가다듬게 하면서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다.

영광초등학교 5학년 권건희 양은 1909년 11월 19일 '을사늑약'에 격분하며 쓴 '의병이 일어나라!'라는 격문에서 "대한제국 병사들이여! 대한제국 백성들이여! 젊은 용사들이여! 지금이 바로 모두 함께 깨어나 나라의 용맹함과 충성심을 보여주자. 의병을 지원하는 자들이여! 모두 나에게로 오라. 나라를 구하고 싶은 자여! 나라에 충성과 목숨을 바칠 자여! 의병이 되어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의병장 김용구·이순식이 활약한 '호

남창의회맹소(湖南信義會盟所)에 대한 강의와 항일·독립운동 퀴즈 프로그램 '후은 김용구와 함께하는 역사 골든벨', 대극 이순식의 의병 모의체험을 주제로 한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우애와 협력, 지략과 민첩함, 애국정신을 함양했다.

또 후은 김용구 선생의 생각이 '상산김씨 삼강문'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 백제사찰 '불갑사', 백제



영광 의병장 청소년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23일 영광군 불갑면 내산서원에서 영광 출신 의병장 김용구·이순식 선생의 불굴의 애국정신을 기렸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불교 도래지 '마라난타', 내산서원 등 영광지역 문화유적지를 탐방했다.

캠프에 참가한 이승원(영광중앙초 6년) 군은 "김용구·이순식이 영광 출신 숨겨진 의병장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면서 "우리 지역 역사와 위인들이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지난 10월 영광대마산업단지에서 개최된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 (영광군 제공)

영광군 'e-모빌리티 산업' 국비 1155억 확보

2025년까지 7개 사업 추진 박차

영광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e-모빌리티(전기동력 기반 운송수단) 산업이 국-모빌리티 사업에 투입될 국비 1155억원을 확보했다.

이중 내년에 추진될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3건에 쓰일 국비만 205억8600만원이다.

내년 신규사업에 쓰일 국비 확보 내역은 초소형 전기차 서비스지원 실증(50억),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기차 개방형 플랫폼 개발(80억),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10억) 등이다.

계속사업 분야는 '제2회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10억),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25억5300만),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증진 기반구축(30억3300만)을 확보했다.

여기에 올해 종료된 디자인융합 마이크로 모빌리티 실증환경 구축사업(317억)까지 추가하면 영광군은 e-모빌리티 사업과 관련된 국비를 2025년까지 7개 사업에 총 1155억원을 확보한 셈이 된다.

내년부터 7년간 480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신규사업인 초소형전기차 서비스지원 실증은 실제 도로 행을 통해 차량 성능을 높이기 위해 영광과 나주 지역에 300~400대의 초소형전기차와 다양한 e-모

빌리티를 투입하게 된다.

또 공공용, 카셰어링, 물류배달, 소외 지역 이동, 관광지 이동 등 다양한 실증과 함께 테마별 이동 서비스 모델도 발굴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기차 개방형 플랫폼 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34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초소형전기차와 e-모빌리티 디자인, 세시,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등 핵심부품의 표준화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e-모빌리티 제품의 국산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굳힐 방침이다.

국내 e-모빌리티 메카인 영광 지역은 관련 기업의 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 캡시스를 비롯해 그린모빌리티, 대풍전기자동차, 부경테크, 에이치비 등 5개사가 대마산단에 입주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이륜차, 전동스쿠터 등 다양한 e-모빌리티 제품을 생산·판매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년에 확보한 국비예산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e-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 영광이 미래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영광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 전국 기초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영광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드론을 활용한 도시계획, 공간계획 분야 등 도시발전 방향 제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항공사진을 이용한 모바일 GIS(현장시스템)를 구축해 보다 실용적인 현장업무에 활용해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실적을 보였다.

군은 앞서 지난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지구 1만1136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

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2개 지구(백수읍 하사리, 법성면 진내리) 3185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토지의 경계를 종이도면에 그림 형태로 등록했던 지적도를 2030년까지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새해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객의 행복을 키우는 MG새마을금고가
올해도 따뜻한 금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MG새마을금고